

## 세계식물 12.5% 멸종위기

장미 10종류 중 1종류, 백합과 야자 10종류 중 3종류가 머지 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미국의 스미소니언학회 등 세계 16개국의 박물학회로 구성된 세계환경보전연맹(IUCN)은 지난 4월 과거 20년간의 연구결과를 발표, (현재 지구상의 식물 가운데 12.5%가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ICUN은 워싱턴 런던 케이프타운 등 회원국 수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식물의 다양성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담은 (위협받고 있는 식물의 적색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27만종의 식물중 3만4,000종이 멸종되고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보고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식물까지 포함한다면 이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는 지구생태계의 급격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1만6,000'종의 식물 중 29%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경향은 호주 남아공 등에서도 비슷하

게 나타났다.

식물 다양성이 위협받게 될 경우 당장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은 제약산업. 현재 의료진에 의해 처방되고 있는 약품의 절반 가량이 천연성분의 구조를 본뜬 것이고 또 25%는 직접 식물에서 추출되거나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는 모르핀, 아스피린, 키니네 등이며 항암제를 추출하는데 쓰이는 주목과의 식물은 75%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밖에도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농업생산은 물론 기후변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갯벌을 보전하자

최근 해양수산부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갯벌이 30~40%나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 바 있다. 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지난 10년동안 이렇게 넓은 갯벌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다. 갯벌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은 환경을 외면한 개발, 특히 대규모 간척사업 때문인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라는 서해안 갯벌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된다.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시대에 갯

벌은 황무지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갯벌은 각종 해양생물의 서식지이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나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

갯벌이 수산자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를 생산성으로 계산하면 농경지에 비해 3~10배, 그리고 외해에 비해 10~20배나 되는데도 우리는 갯벌을 흙으로 메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간척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지도를 한꺼번에 바꿀 정도가 돼버렸다. 그러나 대규모 간척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생태계 파괴만을 초래하는 경우로 전략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오염된 호수만 남긴 시화지구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도 시화호 못지 않은 심각한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갯벌과 같은 연안의 젖은 땅은 중요한 국부로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에 선진국들은 연안역을 각별하게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아직도 연안역 보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연안역을 적절히 관리 보존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한쪽에서는 갯벌 보호를 주장해도 또 한쪽에서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연안생태계를 마구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따라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해서 연안역에 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법으로 연안역에 관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법으로 연안역 통합관리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금년을 「바다의 해」로 정하고 바다와 연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범정부 차원에서 바다와 연안역을 보전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금년 안에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일보)

